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and Maternal Anger on Child Maltreatment*

도현심(Hyun-Sim Doh)¹⁾

김민정(Min-Jung Kim)²⁾

김상원(Sangwon Kim)³⁾

최미경(Mi-Kyung Choi)⁴⁾

김재희(Jae-Hee Kim)⁵⁾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 abuse by exploring the pathways between marital conflict, maternal anger, and child maltreatment. A total of 344 mothers with 3-year-old children responded to questionnaires, which including items on marital conflict/violence, maternal anger, and child maltreatment.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maternal anger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 maltreatment. In more concrete terms,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 maltreatment were a little greater than the direct effect of maternal anger on child maltreatment.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maternal anger was the greatest among all associations between the research variables included in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a number of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which highlights the important considerations that both cultivating positive marital relationships and regulating maternal anger should be emphasized i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for child maltreatment.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C00001).

¹⁾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연구교수

³⁾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⁴⁾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Key Words :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어머니의 분노(maternal anger), 아동학대 (child maltreatment), 예방 및 중재(prevention and intervention).

I. 서 론

현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실태와 심각한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0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집계된 아동학대 건수는 5,657건이었다. 향후 학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잠재적 위험 사례도 506건에 달하였는데, 이는 2009년(444건)보다 14%가 늘어나 아동들이 갈수록 학대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3세 미만의 영아 학대 사례는 530건으로 전년(455건)보다 16%가 증가해 연령 구분 없이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 피해 빈도는 ‘거의 매일’인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 행위자의 83.2%는 부모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은 신체적 학대 및 체벌(김양희, 1995; Mammen, Kolko, & Pilkonis, 2003), 심리적 학대(Straus & Field, 2003), 언어적 학대(김미예 · 박동영, 2009), 방임(윤혜미 · 최문정, 2006) 등과 같은 특정 유형의 학대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부모나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동을 의도적으로 절제 없이 마구 때리고, 지속적인 조롱, 정서적인 손상을 계속해서 가하며, 돌보지 않는 행위’로 정의할 때(Baker, 1997),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모두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의미에서의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예 : 사공순남, 2004; 이경님, 2004 이재연 · 한지숙, 2003; Brown, Cohen, Johnson, & Salzinger, 1998; Hien, Lohen, Caldeira, & Flom, 2010).

아동학대는 그 피해자가 성장기 아동이라는

점과 그 영향이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성장기의 학대 피해자는 자아존중감의 저하, 사회적 위축, 정서불안, 강박, 우울, 공격성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애착 형성의 문제, 낮은 조망수용능력과 감정이입 등의 사회적 관계의 문제, 나아가 학업수행능력의 저하 및 낮은 성취동기 등의 인지기능의 문제까지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련, 1994; 민수홍, 1998; 장화정, 1998; Brezina, 1998; Solomon & Serres, 1999). 또한 학대받은 아동은 청소년기에 비행,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Sternberg, Lamb, Greenbaum, Cicchetti, Dawud, Cortes, Krispin, & Lorey, 1993), 성인기의 가정 폭력, 범죄, 우울과 같은 심리, 사회적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Malinosky-Rummel & Hansen, 1993).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심각하고 그 영향이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동학대가 대부분 부모에 의해 발생된다는 보도는, 아동의 근접환경으로서 아동발달의 제 영역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부모와 부모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연구된 부모관련 변인으로 부부갈등은 가정 안에서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노출되기 쉬우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원만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공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실제로 국내의 연구들은 부부간의 불화가 아동학대와 관련됨을 지적하였으며(전영실, 2003; 조

숙현, 2005; 주지현, 2001), 부부논쟁의 해결 방법으로 신체, 언어적 공격을 가할 때 부모는 아동훈육에도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신영화, 1986). 또한 부부사이에 애정이나 정서적 지지 등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 관계에서 갈등을 느낄 때, 쉽게 자녀학대로 이어졌고(사공순남, 2004), 부부간의 불화가 심한 경우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 자녀를 학대하였으며(고성혜, 1992), 보다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였다(문영숙, 2011). 가정분위기와 아동학대 간에도 서로 관련이 있어 가정의 분위기가 폐쇄적, 갈등적일 때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김일령, 1997; 전영실, 2003). 국외의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어머니는 결혼만족도가 높은 어머니보다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Whipple, 1991), 부부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높았다(Jouriles, Barling, & O'Leary, 1987). 또한 부부갈등이 있는 부부는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수준이 낮았고 자녀에게 체벌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으며(Buehler & Gerard, 2002), 결속력과 표현력이 적었고 아동학대를 쉽게 유발하였다(Milner & Chilamkurti, 1991).

이와 같이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그 대상이 주로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이며(김혜영·장화정, 2002; 노지형·송현주, 2007; Buehler & Gerard, 2002),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부부간의 갈등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수준을 낮추며 강압적인 양육과 관련된다는 점(Buehler & Gerard, 2002)과 유아기에 형성된 부모자녀관계 방식이 이후에도 지속되기 쉬운 점을 고려할 때, 유아기의 부부갈등과 아동학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부부갈등의 경우 그 빈도나

강도가 아동학대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에도 이 두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아동학대의 여러 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은 아동의 기질과 같은 개인적 특성보다 아동학대와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Whipple, 1991)에 근거할 때, 아동학대와 관련된 또 다른 부모관련 변인으로서 부부갈등 외에도 부모의 부정적 특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부모가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충동성과 의존성이 높고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정체감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았다(Milner & Chilamkurti, 1991).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는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향해 가장 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정적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분노는 괴로움을 주는 상황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으로 그 표현방식에 따라 폭발을 하거나 가슴으로 삭히는 등(김유미, 2007)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분노는 각 개인이 가진 분노경향성의 차이에 따라 분노 표출 행동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으로, 한번 경험한 분노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박희순, 2008). 따라서 일상적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시 분노 수준이 높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분노와 아동학대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국내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몇몇 안 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분노경향성이 있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학령기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보다 더 많았다(김유미, 2007; 박희순, 2008). 또한 부모가 충동적이며, 분노조절

을 잘하지 못할 경우 학령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가능성이 높았다(김혜영·장화정, 2002; Milner & Chilamkurti, 1991; Whiteman, Fanshel, & Grundy, 1987).

앞서 고찰한 아동학대의 부모관련 변인들, 즉 부부갈등과 부모의 분노, 대인관계의 문제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표출되기 쉽다는 점(Horowitz, 1996)에서 양자간의 관련성을 예측하게 한다. 즉, 부부갈등이 장기화 될 때 부부는 욕구좌절이 커져 부부간에 긴장과 분노가 증가하기 쉽다(송영자, 1986). 부부갈등과 부모의 분노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으로, 생후 초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부부갈등으로 야기되기 쉬운 현상인 결혼생활의 스트레스가 부부의 우울, 분노, 불안을 증가시켰다는 선행 연구(Papp, Cummings, & Schermerhorn, 2004)는 부부갈등과 부모의 부정적 정서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정하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갈등, 부모의 분노 및 아동학대 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즉, 부부간의 갈등은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취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었으며(사공순남, 2004; 주지현, 2001), 분노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았다(김혜영·장화정, 2002). 또한 부부갈등은 개인의 정서특성인 분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부갈등은 분노, 우울 등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하였다(송영자, 1986). 위와 같이, 부부갈등, 부모의 분노 및 아동학대 간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해 볼 때, 부부갈등은 아동학대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분노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가정된다. 실제로, 몇몇 국외 연구들(Burke, 2003; Shay & Knutson, 2008)에 의하면,

부부 간에 갈등이 계속될 때 나타나기 쉬운 우울은 짜증스러움과 같은 분노의 표현을 야기하며 이것은 다시 아동을 거칠게 대하는 학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부갈등과 부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의 부정적 정서의 매개적 역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결과는 최근 국내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즉, 부부갈등이 심할 때 분노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양육스트레스가 커지고 이것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였다(민하영·이영미, 2009).

한편, 아동을 가장 많이 학대하는 사람은 부모 가운데 주로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라는 점(Friedrich & Boriskin, 1976; Gelles & Cornell, 1990)에서, 아동학대의 가해자 측면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학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본 연구변인들 가운데 하나인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아동학대 간의 관련성에도 근거하였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자녀가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 부부 중 약자에 속하기 쉬운 아내는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보복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분노를 자녀에게 해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Faller & Zidfert, 1981).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분노 역시 어머니의 경우에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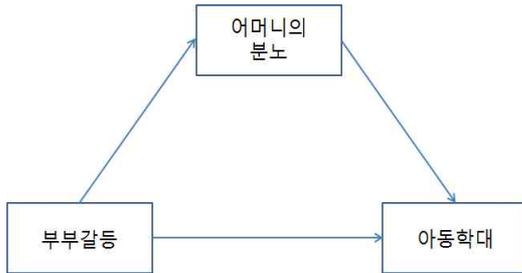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분노, 그리고 아동학대 간의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어머니의 분노를 통해서 아동학대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연구문제 1> 부부갈등은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분노를 통해

아동학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155명), 35-39세가 41.9%(144명)순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50.9%(17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원 이상으로 20.6%(71명)이었으며,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이 45.6%(15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가 20.7%(71명)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39.8%(137명),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20.6%(71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8.0%(62명)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32.3% (111명)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27.3%(94명),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14.2% (49명)이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20곳 어린이집에 다니는 344명의 만 3세 유아(평균 : 42개월, 표준편차 : 3.32)로서, 그들의 어머니가 응답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이른 시기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고자 이 시기의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공격성과 같은 아동행동문제의 발달과 관련되는 다양한 부모관련 위험요인들 가운데 부모의 분노와 공격성이 포함된다는 연구결과(Conger, Neppl, Kim, & Scaramella, 2003)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52.9%(182명), 여아가 47.1%(162명)이고, 유아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61.6%(212명), 둘째가 33.7%(116명), 셋째이상인 3.8%(13명)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35-39세가 52.9%(182명), 30-34세가 25.9%(89명)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0-34세가 45.1%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부갈등, 어머니의 분노 및 아동학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척도는 어머니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 척도는 Grych, Seid와 Fincham (1992)이 개발한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CPIC)을 권영옥과 이정덕 (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K-CPIC의 8개 하위요인들 가운데 부부갈등의 빈도(7문항)와 강도(4문항)의 두 요인만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이러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부부갈등의 빈도 및 강도가 부부갈등의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 국내외 연구들(권영옥·이정덕, 1997; 김경민, 2010; 노지형·송현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N = 344)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아	182(52.9)	출생 순위	첫째	212(61.6)	
	여아	162(47.1)		둘째	116(33.7)	
부 연령	25세-29세	6(1.7)		모 연령	셋째이상	13(3.8)
	30세-34세	89(25.9)			무응답	3(0.9)
	35세-39세	182(52.9)	25세-29세		17(4.9)	
	40세-44세	55(16.0)	30세-34세		155(45.1)	
	45세 이상	11(3.2)	35세-39세		144(41.9)	
	무응답	1(0.3)	40세-44세		25(7.3)	
부 교육수준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1(0.3)	모 교육수준	45세 이상	3(0.8)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35(10.2)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1(0.3)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60(17.4)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49(14.2)	
	대학교 졸업 이상	175(50.9)		전문대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71(20.7)	
	대학원 졸업 이상	71(20.6)		대학교 졸업 이상	157(45.6)	
무응답	2(0.6)	대학원 졸업 이상	65(18.9)			
부 직업	무직	0(0.0)	모 직업	무응답	1(0.3)	
	환경미화원	2(0.6)		가정주부	111(32.3)	
	생산직 감독	19(5.5)		환경미화원	1(0.3)	
	자영업	71(20.6)		생산직 감독	11(3.2)	
	일반사무직	9(2.6)		자영업	22 (6.4)	
	회사원	137(39.8)		일반사무직	21(6.1)	
	전문직	62(18.0)		회사원	94(27.3)	
	기업주, 고위관리공무원	16(4.7)		전문직	49(14.2)	
	기타	26(7.6)		기업주, 고위관리공무원	2(0.6)	
	무응답	2(0.6)		기타	26(7.6)	
			무응답	7(2.0)		

주, 2007; Grych, Sied, & Fincham, 1992)에 근거하였다. 또한, K-CPIC는 아동 보고용이었으나, 연구대상 아동이 자기 보고가 불가능한 유아기에 속하여 어머니들이 응답에 참여한 본 연구의 특성상 이를 부모 보고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부부갈등의 빈도는 ‘자주 다툰다.’, ‘집안 곳곳에서 서로에게 잔소리와 불평을 한다.’ 등으로, 부부갈등의 강도는 ‘다들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낸다.’, ‘다투는 중에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갈등의 빈도 및 강도와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5와 .82, 그리고 .89이었다.

2) 어머니의 분노 척도

어머니의 분노는 전점구, 김동현과 이준석(2000)의 척도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 (10문항),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및 분노통제(8문항) 등 5개 하위요인들(총 44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는 분노경험 차원에, 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통제는 분노 표현 차원에 포함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낮추는 분노통제 요인을 삭제하여, 총 36문항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상태분노의 경우,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고 싶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성분노의 경우, ‘쉽게 화를 낸다.’, ‘화가 나면 욕을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억제의 경우, ‘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표출의 경우, ‘사람들과 말다툼한다.’,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상태분노는 .82, 특성분노는 .89, 분노억제는 .84, 분노표출은 .80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경우는 .93이었다.

3) 아동학대 척도

아동학대는 Straus, Hamby, Finkelhor, Moore와 Runyan(1998)의 학대/방임 척도인 Parent-to-Child version of the Conflict Tactics Scales(CTSPC)를 번역 및 역번역(backtranslation)하여 측정하였다. 원 척도는 비폭력적 훈육(nonviolent discipline)(4문항), 심리적 공격성(psychological aggression)(5문항), 신체적 폭행(physical assault)(13문항), 방임(neglect)(5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을 제외한 3가지 하위요인의 경우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0점)’에서 ‘지난 주에 20번 이상(6점)’까지, 방임의 경우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음(0점)’에서 ‘작년에 20번 이상(6점)’까지와 ‘작년에는 없었으나 그 전에는 발생했었음’(7점)으로 평가한다. 이 중 번안과정에서 신체적 학대와 관련한 3문항을 삭제하였는데(예 : 목주위를 잡고 숨이 막히게 했다. 고의로 화상을

입혔거나 고의로 야단쳤다. 칼로 위협했다), 이는 일반집단이라는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우리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할 때 내용적으로 심각성의 정도가 지나쳐 어머니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와 관련하여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ggression)(5문항), 신체적 학대(physical assault)(10문항), 그리고 방임(neglect)(5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심리적 학대의 경우, ‘아이에게 멀리 보내버릴 것이라고 말하거나 집밖으로 쫓아낸다.’, ‘아이에게 때린다고 위협하나 실제 때리지는 않는다.’ 등이고, 신체적 학대의 경우, ‘맨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다.’, ‘허리띠, 머리빚, 막대기 또는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린다.’, ‘아이의 얼굴, 머리카락을 찰싹 때린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의 경우,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을 챙겨주지 못한다.’, ‘나 자신의 문제에 너무 사로잡혀,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요인과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66, .84와 .62, 그리고 .86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20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기관장의 동의하에 2010년 12월 3일 - 2011년 1월 6일에 유아 편에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약 1주일 후에 회수되었다. 배부된 409부 가운데 350부가 회수되었다(86%의 회수율). 이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1부), 아버지 부재(5부)를 제외하고, 총 344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의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남편과

동거하는 어머니들만을 본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분석하였다.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NFI(Normed fit index) 등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 즉, 부부갈등의 하위변인인 빈도와 강도, 어머니의 분노의 하위변인인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 그리고 아동학대의 하위변인인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등 모든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선행 변인들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독립변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 간의 상관관계는 .27-.41($p < .01$)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각각 10 이하(1.576-2.242)와 0.1 이상(0.446-0.635)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2. 측정모형의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변인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344$)

변 인	1	2	3	4	5	6	7	8	9
<u>부부갈등</u>									
1. 빈도	-								
2. 강도	.72**	-							
<u>어머니의 분노</u>									
3. 상태분노	.40**	.40**	-						
4. 특성분노	.31**	.31**	.56**	-					
5. 분노억제	.33**	.27**	.51**	.48**	-				
6. 분노표출	.36**	.41**	.52**	.68**	.52**	-			
<u>아동학대</u>									
7. 심리적 학대	.26**	.33**	.42**	.31**	.22**	.39**	-		
8. 신체적 학대	.31**	.33**	.37**	.32**	.21**	.39**	.67**	-	
9. 방임	.27**	.25**	.25**	.14*	.21**	.14*	.33**	.33**	-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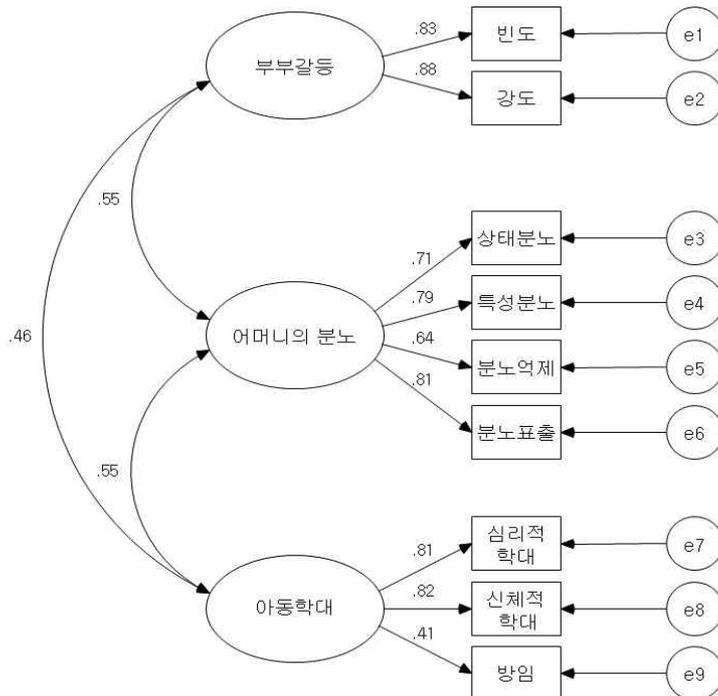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N = 344)

잠재변수	측정변수	M	SD	B	β	S.E	t	p
부부갈등	빈도	1.67	.58	1	.83	-	-	-
	강도	1.82	.51	.92***	.88	.08	11.45	***
어머니의 분노	상태분노	1.49	.53	1	.71	-	-	-
	특성분노	1.93	.57	1.18***	.79	.09	12.88	***
	분노억제	1.97	.54	.90***	.64	.09	10.63	***
	분노표출	1.90	.46	.99***	.81	.08	13.14	***
아동학대	심리적 학대	1.56	.42	1	.81	-	-	-
	신체적 학대	1.36	.36	.85***	.82	.07	11.54	***
	방임	1.20	.28	.33***	.41	.05	6.94	***

*** $p < .001$.

들 간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 β)은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하는데(김계수, 2007),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이에 해당하였다(표 3, 그림 2). 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chi^2 = 70.462(df = 24)$, $\chi^2/df = 2.94$, CFI = .962, TLI = .942, NFI = .943, RMSEA = .075로 나타나, $\chi^2/df < 3$ (Kline, 1998), CFI > .90, NFI > .90, TLI > .90(Hu & Bentler, 1995), RMSEA < .08(Browne & Cudeck, 1993)라는 기준을 충족시켜 그 적합성을 증명하였다(표 4).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표 4〉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변인	χ^2	GFI	RMSEA	CFI	TLI	NFI
지수값	70.462	.958	.075	.962	.942	.943

〈표 5〉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 ($N = 344$)

잠재변인 간의 경로	B	β	SE	t	p
부부갈등 → 아동학대	.06	.23	.02	2.87**	.004
어머니의 분노 → 아동학대	.13	.42	.03	4.49***	***
부부갈등 → 어머니의 분노	.47	.55	.06	7.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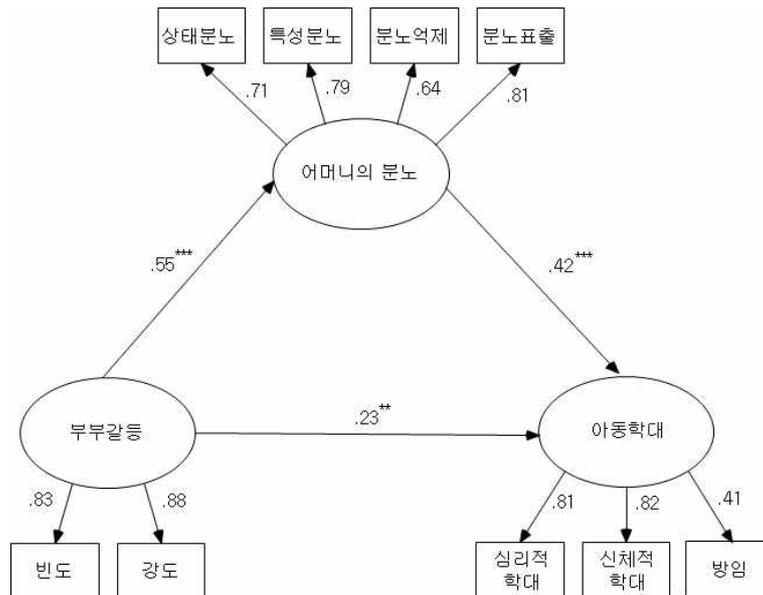
** $p < .01$. *** $p < .001$.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70.462(df = 24)$, $\chi^2/df = 2.94$, CFI = .962, TLI = .942, NFI = .943, RMSEA = .075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경로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첫째,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직접적인



주) 측정오차는 생략함.
** $p < .01$. *** $p < .001$.

〈그림 3〉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6〉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N = 344$)

변수 간 경로	Sobel	표준화된 경로계수			R^2
	Z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부갈등 → 아동학대	3.79***	.23	.23	.46	.34
어머니의 분노 → 아동학대		.42	-	.42	
부부갈등 → 어머니의 분노		.55	-	.55	.30

*** $p < .001$.

영향과 관련하여, 부부갈등은 아동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3, p < .01$). 즉, 부부갈등이 클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분노를 통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로의 경우,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분노($\beta = .55, p < .001$)에, 어머니의 분노는 아동학대($\beta = .42,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부갈등이 클수록 어머니의 분노 수준은 높았으며, 이는 아동학대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그려 보면 그림 3과 같다.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분노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beta = .46$)과 어머니의 분노($\beta = .42$) 순이었다(표 6).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분노의 매개효과는 Sobel Test¹⁾ 방법을 사용하여 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즉,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분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beta = .55, p$

$< .001$), 아동학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Z = 3.79, p < .001; \beta = .23, p < .01$). 또한,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분노의 아동학대에 대한 설명력과 부부갈등의 어머니의 분노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34%와 30%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유아기의 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및 분노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분노를 통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부갈등은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클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부부불화나 부부갈등과 같은 부부관계 문제가 자녀학대로 이어진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사공순남, 2004; 주지현, 2001; Milner & Chilamkurti, 1991)과 유사한 맥락이다.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1) Sobel test에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분모의 Sa와 Sb는 각각 추정치 a와 b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alpha = .05$ 수준에서 Zab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7).

$$\text{Sobel test : } Zab = \frac{ab}{\sqrt{b^2 S_a^2 + a^2 S_b^2}}$$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온 점에 근거할 때, 부부갈등은 아동의 성장기 전체에 걸쳐 부모의 부정적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 측면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이상의 아동과 비교했을 때 유아기의 아동은 일상적인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조능력, 사건과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 면에서 부족하다. 즉, 학령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신체, 인지, 사회정서적 발달 수준이 낮아 부정적 주변 환경에 보다 더 취약하기 쉬운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영향력은 이후의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유아기에 경험한 아동학대가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력(Kaplow & Widom, 2007; Manly, Kim, Rogosch, & Cicchetti, 2001)을 감안할 때, 이 시기 자녀를 둔 부모의 건강한 부부관계를 돕기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부부관계의 향상을 위해서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갈등관리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부부간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Gottman, Gottman, & Shapiro, 2010). 일상생활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하며 서로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첫 자녀의 출생 이후 3년 사이에 눈에 띄게 감소함을 고려할 때, 부부관계를 위한 개입은 출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Gottman, Gottman, & Shapiro, 2010).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및 아동발달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부부갈등은 또한 어머니의 분노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분노는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여, 부부갈등이 클수록 어머니의 분노감이 높고 이는 자녀학대로 이어졌다. 이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정서적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등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초래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이경님, 2004; Krishnakumar & Buehler, 2000)과 일맥상통한다. 적대적인 부부관계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학대받는 어머니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좌절감과 분노감을 느끼기 쉽다.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과 아동학대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Faller et al., 1981)에서와 같이, 부부갈등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자녀에게 전이되거나 자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학대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평소 불만이 있어도 자신의 분노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억제하고 적절히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이르게 되면 내부적으로 응축된 분노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기 쉬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분노가 갖는 부분 매개적 역할은 가족관계의 역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부부갈등, 어머니의 분노, 그리고 아동학대 등 세 가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아동학대에 직, 간접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어머니

의 분노가 아동학대에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부부갈등이 이러한 어머니의 분노에 대해 본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긍정적 자녀양육을 돕는다는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부부관계 유지를 돕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어머니의 분노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전대, 어머니들이 부부갈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분노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분노를 통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부정적 경로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인들 중에서 부모관련 변인에 초점을 두었다. 생물생태학적 관점(bioecological perspective)에서 볼 때 아동학대에 기여하는 위험요인은 아동,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특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Siegler, DeLoache, & Eisenberg, 2011).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아동과 지역사회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 특성에는 출생 시 체중미달, 신체 또는 정신 장애, 까다로운 기질 등이 포함되며, 지역사회 특성으로는 부적절한 거주공간(housing)과 지역사회의 폭력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이 몇몇의 위험요인에 중점을 둔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부모의 특성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적 관계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적인 처벌이 아동의 공격적인 문제행동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공격적이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부모로 하여금 가혹한 처벌을 사용하게끔 한다(Siegler et al., 2011 재인용). 또한, 본 연구는 지역사회 표본, 즉 유아기 자녀를 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임상집단과 같은 특수 집단에 본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특성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척도 중심리적 학대 요인과 방임 요인의 경우 다른 연구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확보되긴 하였으나, 내적일치도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 아동학대 관련 현장에 관해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 아동학대의 개입에 있어서 현장 종사자는 학대받는 아동 본인뿐 아니라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더 나아가 부부관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아동 상담, 어머니 상담 및 부부 상담을 포함하는 다각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갈등과 폭력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건설적인 방식의 문제해결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의 증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지행동적 접근을 사용하여 배우자 및 자녀의 행동을 해석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함으로써, 학대, 폭력 등 부정적 행동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서혜석, 2005; Bugental, Ellerson, Lin, Rainey, Kokotovic, & O'Hara, 2010).

아동학대의 예방적 차원에서 볼 때,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발전시키

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관계의 질은 양쪽 부모 모두의 양육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민하영 · 이영미, 2010; Bouchard & Lee, 200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는 자녀양육과 부부관계에 대해 균형 잡힌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즉, 만족스러운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부부만의 질적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양육(coparenting)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주로 학령기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온 시점에서, 본 연구는 유아기의 경우에도 부부갈등이 클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하여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어머니의 분노에 주목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족환경, 특히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의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1992). 아동학대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고정자 · 김갑숙(1992).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1), 80-98.
- 권영옥 ·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경민(2010).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남녀 청소년의 친구관계 질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계수(2007). **AMOS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미예 · 박동영(2009).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 및 언어적 학대. **아동간호학회지**, 15(4), 375-382.
- 김양희(1995). 가출아동의 신체적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미(2007). 어머니의 분노경향과 아동학대 유발 가능성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일령(1997). 가정내 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준호 · 김선애(1997).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 5-28.
- 김혜련(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영 · 장화정(2002). 아동학대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6(2), 269-286.
- 노지형 · 송현주(2007).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관계. **심리치료**, 7(2), 75-89.
- 문영숙(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7(1), 22-30.
- 민수홍(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하영 · 이영미(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정 : 거부적 양육행동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03-213.
- 박희순(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분노경향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11). 2010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사공순남(2004).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논문.
- 서혜석(2005). 자아존중감 및 부부적응 향상을 위한 가정폭력행위자의 부부집단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5. Satir 성장모델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 10(1), 25-41.
- 송영자(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혜미·최문정(2006). 어머니 우울과 부부갈등이 방임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7, 21-44.
- 이경남(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행동문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63-73.
- 이재연·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24(2), 63-78.
- 장화정(1998). 아동학대 평가척도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구·김동현·이준석(2000). 한국관 상태-특성 분노 표현척도(STAXI-K) 개발연구 IV. **미술치료학회지**, 7(1), 33-50.
- 전영실(2003). 가족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11(2), 53-77.
- 조숙현(2005). 어머니의 성격특성, 부부갈등과 유아의 문제행동이 아동학대잠재성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9(2), 15-31.
- 주지현(2001). 여성의 아동학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 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1), 161-177.
- 홍세희(2007).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Baker, E. (1997). Assessing and managing allegation of child sexual abuse.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5(3), 293.
- Bouchard, G., & Lee, C. M. (2000). The marital context for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children : The role of partner support.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0(1), 37-53.
- Brezina, T. (1998). Adolescent maltreatment and delinquency : The question of intervening process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1), 71-79.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alzinger, S. (1998). A longitudin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 Findings of a 17-year prospective study of officially recorded and self-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2(11), 1065-107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11-135). Beverly Hills, CA : Sage.
- Bue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78-92.
- Bugental, D. B., Ellerson, P. C., Lin, E. K., Rainey, B., Kokotovic, A., & O'Hara, N. (2010). A cognitive approach to child abuse prevention. *Psychology of Violence*, 1(S), 84-106.
- Burke, L. (2003). The impact of maternal depression on familial relationship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5(3), 243-255.
- Conger, R. D., Neppl, T., Kim, K. J., & Scaramella, L. (2003). Angry and aggressive behavior across three generations :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 A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31(2), 143-160.
- Faller, K. C., & Zidfert, M. (1981). Causes of child

- abuse and neglect. In K. C. Faller, (Ed.), *Social work with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The Free Press.
- Friedrich, W. N., Boriskin, J. A. (1976). Ill-health and child abuse. *Lancet* 1(7960), 649-650.
- Gelles, R. J., & Cornell, C. P. (1990).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Vol. 2, 2nd E d.). Beverly Hills, CA : Sage.
- Gottman, J., Gottman, J., & Shapiro, A. (2010). A new couples approach to interventions for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M. S. Schulz, M. K. Pruett, P. K. Kerig, & R. D. Parke (Eds.), *Strengthening couple relationships for optimal child development* (pp. 165-179).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rych, J. H., Sie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3), 558-572.
- Hien, D., Cohen, L. R., Caldeira, N. A., & Flom, P. (2010). Depression and anger as risk factors underl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ubstance involvement and child abuse potential. *Child Abuse & Neglect*, 34(2), 105-113.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83-300.
- Hu, L. T., & Bentler, P. M. (1995).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76-99). Thousand Oaks, CA : Sage.
- Jouriles, E., Barling, J., & O'Leary, K. (1987).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2), 165-173.
- Kaplow, J. B., Widom, C. S. (2007). Age of onset of child maltreatment predicts long-term mental health outcom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1), 176-187.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Guilford.
- Krishnakumar, A., & Bueler, C.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 A meta-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1), 25-44.
- Malinosky-Rummell, R., & Hansen, D. J. (1993).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Bulletin* 114(1), 68-79.
- Mammen, O., Kolko, D., & Pilkonis, P. (2003). Parental cognitions and satisfaction : Relationship to aggressive parental behavior in child physical abuse. *Child Maltreatment*, 8(4), 288-301.
- Manly, J. T., Kim, J. E., Rogosch, F. A., & Cicchetti, D. (2001). Dimensions of child maltreat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 Contributions of developmental timing and sub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759-782.
- Milner, J. S., & Chilamkurti, C. (1991). Physical child abuse perpetrator characteristic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3), 345-366.
- Papp, L. M., Cummings, E. M., & Schermerhorn, A. C. (2004). Pathways among marital distress, parental symptomatology,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368-384.
- Shay, N. L. & Knutson, J. F. (2008). Maternal depression and trait anger as risk factors for escalated physical discipline. *Child Maltreatment*, 13(1), 39-49.
- Siegler, R., DeLoache, J., & Eisenberg, N. (2010). *How children develop (3rd Ed.)*. New York : Worth Publishers.
- Solomon, C. R., & Serres, E. (1999). Effects of parental verbal aggression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marks. *Child Abuse & Neglect*, 23(4), 339-351.
- Stenberg, K. J., Lamb, M. E., Greenbaun,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M., Krispin, O., & Lorey, F. (1993). Effect of domestic violence on

-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4-52.
- Straus, M. A. & Field, C. J. (2003) Psychological aggression by American parents : National data on prevalence, chronicity, and sever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4), 795-808.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Whipple, E., & Webster-Stratton, C. (1991).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Child Abuse and Neglect*, 15(3), 279-291.
- Whiteman, M., Fanshel, D., & Grundy, J. F. (1988).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aimed at anger of parents at risk of child abuse. *Social Work*, 32(6), 469-474.

2011년 6월 30일 투고, 2011년 9월 14일 수정
2011년 9월 22일 채택